



헝가리, IMF 금융지원 요청으로 재정위기 동유럽 전이 위험 증가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EU의 회원국인 헝가리는 11월 21일 IMF와 EU에 금융지원을 요청함.

- IMF는 11월 21일 EU와 함께 헝가리로부터 금융지원 요청을 받았다고 밝힘.
- 이는 헝가리 정부가 11월 셋째 주 IMF와 협상을 시작한 지 4일만임.

■ 헝가리의 국채금리 급등 등으로 인해 IMF 등에 대한 금융지원 요청은 10월부터 예상되어 왔었음.

- 헝가리의 10년 만기 헝가리 국채금리는 10월에 이미 7%를 상회하였고 11월 17일에는 8.74%까지 상승함.
- 헝가리는 부실대출과 유럽위기에 따른 모회사의 지원 차단 등으로 인해 취약했던 금융권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었음.
 - 독일, 이탈리아 등 서유럽 은행들의 자회사가 헝가리 금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.
 - 서유럽 대형 은행들은 2012년 6월까지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만큼 동유럽 자회사들을 지원할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었음.
 - 헝가리 중앙은행은 11월 들어 유럽의 모은행들로부터 헝가리 내 자은행들로 위기가 전이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하였음.

■ 헝가리는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동유럽 중 가장 높으며 경제성장은 2012년에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IMF 등에 대한 금융지원 요청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.

- 2011년 3/4분기 말 현재 헝가리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82%로 동유럽 국가 중 가장 높음.
- 재정수지는 2011년 일시적으로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나, 2012년 GDP 대비 2.8% 적자, 2013년 3% 이상 적자(EU 전망치)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■ 헝가리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은 동유럽 국가의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해 유로지역 재정위기를 동유럽까지 확대시키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임.

-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헝가리의 국가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으로 강등할 경우 시장의 반응 여하에 따라 유로존 재정위기가 동유럽으로 전이될 수 있음.
- S&P는 11월 11일 헝가리를 부정적 관찰대상에 올려놓았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헝가리의 국가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하락할 수도 있음을 의미함.
 - 11월 22일 현재 S&P의 헝가리 국가 신용등급은 투자적격등급의 맨 마지막인 BBB-임.
 - S&P는 정부예산 감시기능 약화 및 재정수입 관련 헝가리 정책의 불확실성 증대가 경제성장과 정부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, 서유럽 대형 은행의 어려움으로 국가신용등급 하향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함.

■ 전문가들은 헝가리 다음으로 동유럽 국가 중 유로지역 재정위기가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폴란드를 거론하고 있음.

- 폴란드의 GDP 대비 정부부채는 2010년에 55%,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2011년 3/4분기에 4.6%에 달하면서 점차 악화되어 가고 있음.
- 또한 폴란드는 헝가리와 유사하게 스위스프랑화 가치 상승에 따른 외화대출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.
 - 11월 현재 헝가리는 스위스프랑화 표시 외화대출이 GDP의 21%를 차지하고 있으며, 폴란드는 11%에 달함.

(Financial Times, 11/22)